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치는 동해지구에 일떠선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갈마식료공장에서

위대한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태어난 창조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신군혁명영도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길 용기를 안으시고 그이께서 끊임없이 견고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길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이 새겨져있는지인가.

동해지구에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새로 일떠선 갈마식료공장에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안겨주시려고 바치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갈피갈피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신다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뜻깊은 조국해방 69돛을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조성한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시었다.

지난해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해 공장 건설을 직접 감독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그 이후에는 몸소 《갈마식료공장》이라고 명칭까지 내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공장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주시고 현대적인 설비들도 다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샘줄기가 되어 도안의 건설자들이 지난해 11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개월동안에 일떠세운 공장이었다.

지난 6월말 공장건설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첨단 수준의 승화건조설비의 작용원리도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며 조업을 앞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우는 공장에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에 대한 헌정이 뜨거우 사랑을 지니신 그이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 생 각조차 할수 없는 공장의 오늘 이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50일도 안되어 또다시 자그마한 일터를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공장건설로부터 조업에 이르기 까지 바치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일꾼들의 마음속에 애는 원수님에 대한 헌정은 고마움의 격정이 교미되고 있었다.

공장과 해당 부문 일꾼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시며 공장전 경도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건물의 외벽 타일을 가리키시며 공장이 이제야 멋있게 되었다고, 시공을 깨끗하게 잘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연간생산량도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수산물보장 대책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공장건물이 전면 에 와보았을 때보다 완전히 때뱌기를 하였고도 거듭 평가하시며 종합조종실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 기술자로부터 컴퓨터화면에 현 시된 승화건조공정과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나서 경영관리를 더욱 정교화 하여야 한다고, 이 공장은 물고기 가공공장의 본보기공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계속해서 컴퓨터화면에 현 시되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도 주의깊게 보시며 식료가공에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거듭 찾아오시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해야 할 공장의 사명에 맞게 생산과 경영관리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를 수 있는 일꾼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인민들에게 맞서서 뿐 아니라 위생안전성에서도 종합을 데 없는 수산물가공품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였다.

1차가공실에 들리시었을 때에는 생산자들이 위생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짓갈가공실에서는 짓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일깨워주시었다. 팽동진공조실에 이어 선별포장실에 이르시어 포장을 잘 하도록 방도를 연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말린명태의 맛까지 보아주시며 정말 맛이 있다고, 말린명태는 이렇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치하해주실 때 동행한 공장의 일꾼들은 황송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공장을 처음 찾아오신 그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수산물가공품이기에 절대로 방부제를 넣지 말고 생산할데 대하여, 수산물가공에서는 염분과 색깔 그리고 수분을 잘 맞추는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이후에는 중앙의 해당 일꾼에게 공장에 사람을 내 려보내어 짓갈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줄데 대한 사랑의 말씀도 주신분이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그 사랑, 그 손길아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수산물가공기지의로서의 성상의 첫걸음을 떼며 불타는 지기를 데어 안겨진 불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우리의 상표가 붙은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가공품들이 쏟아져나와 온 나라에 사회주의 바다향기를 더해줄 그날을 그려 보시며 수치포장팩을 생산하는 사출현장에 이르러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은 물론 과학기술적보급실, 회의실, 학습휴게실도 돌아보시면서 시중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독점지표개발에 더욱 힘을 넣으면서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함으로써 인민생활에 실지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게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전경 동해지구에 새로 일떠선 수산물가공기지에 갖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에 빛날지는것은 오직 땅을 따라 천만고생을 다하며 위대한 대인원들의 유혹관철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는 하늘같은 사랑과 애국헌성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조국의 재부들이 이렇게 늘어나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서 높아가는 중산의 동음, 행복의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꽃피고, 내 조국 땅에 머지않아 꽃피게 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가슴부터 이 안겨주고있는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순간에 포착하신 문제

1차가공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바람진 조기앞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내장을 들어내고 세척한 명태들이 벨트를 따라 흐르다가 경사면을 타고 바람진 조기로 떨어지고있었다. 그런데 그 일부는 경사면에 붙어 내려가지 않았다. 공장의 일꾼들은 초조한 마음을 안고 물음표를 물라하였다.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종합조종실에 이어 1차가공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이 다 1회용장갑과 장화를 신고 일하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짓갈가공실로 향하시다가 문득 한옆에 설치된 팽동진공조실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현장의 실내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설비라는 한 일꾼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팽동진공기를 통해서도 가공실에

경사각을 더 주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공정의 벨트면을 조금 높여주어야 명태가 건조기에 저절로 떨어질수 있고 명태를 세척하는 가공공들이 허리도 아프지 않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시운전단계를 거치면서도 일꾼들은 물론 공장의 기술자들도 미처 관심하지 못하였던 문제였다. 얼핏 스쳐지

첫째도 둘째도 위생안전성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 6월현지담소를 받들고 배풍능력을 높이고 바다물소독기, 자외선소독기 등도 설치하여 이제는 생산현장과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원만히 세웠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였다.

온도조절을 위하여 현장의 여러곳에 설치한 팽동진공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수 있다고 과연 누가 생각조차 해보았는가. 우리 인민들에게 맛뿐 아니라 위생안전성도 철저히 담보된 수산물가공품을 안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여바의 뜨거운 사랑의 제책의 순간이였다.

포장용기의 색깔문제

제품포장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 주시었다.

조미료와 방부제를 넣지 않고 팽동진공조한 명태들도 있었고 명란젓과 창란젓도 있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우리 상표가 붙은 제품들을 만족스럽게 바라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시는 그 짧은 시간에 경사면의 각도를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해결방도까지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며 일꾼들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후 공장에서는 벨트공정을 몇cm 높였다. 경사면의 각도도 그에 따라 조절된 결과 명태들이 거칠없이 바람 건조기로 떨어졌것은 물론 허리를 굽히고 세척작업을 하는 가공공들도 더는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

마치 반찬팩에 짓갈을 담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해주시었다.

하나의 제품을 보시고도 그것을 받아안을 인민들의 관점에서 모든것을 대하시어 생산한 투명명 사각, 원형 수직명태였다.

한동안 말이 없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직명태를 투명으로 하지 말고 불투명도 하여야 한다고, 지금처럼 포장하면

특약기자 신 천 일

독점지표 개발에 떨쳐나섰다

지금 공장에서는 맛과 질에 있어서 갈마식료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독점지표를 개발생산할 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담소관철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공장의 일꾼들은 독점지표를 정하고 제품의 특성에 맞게 수산물가공품의 기본지표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힘있게 결속시키고있다.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이 자기의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하고있다.

말린 수산물가공품생산의 핵심설비인 승화건조로에서 제품 종류에 따르는 기술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사업이 마지막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기술준비실은 창조적외화 사색,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며 명태건조제 승화건조로의 건공압력과 단별별온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토대하여 그는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과의 경제적으로의를 거듭하고 부단한 시협작업을 진행하며 나지건조제의 기술지표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현장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개선하고 수산물가공에서 지켜야 할 표준조작법들을 현장설비에 맞게 끊임없이 완성해나가고있다.

가공, 포장작업의 로동자들도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독점지표개발사업을 자기자신의 사

업으로 받아들이고 떨쳐나서고 있다. 자기 기대, 자기 설비에 하루빨리 정통하고 표준조작법을 익히기 위한 기술학습이 대 중자신의 사업으로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종업원들의 기술수준이 부쩍 오르고있다.

공장일꾼들은 해당 부문의 긴밀한 령계밑에 종업원들의 수산물가공기술을 높여주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설비들이 이미 마련된데 맞게 하루빨리 국가망에 접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보라, 건설교육자부대의 일손씨를!

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건설공사의 수준에서 최단기간내에 관철한 이 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손씨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생산현장의 바닥

은 바닥수정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단 며칠사이로 생산현장의 건물내부의 품질

과학기술지식보급실, 회의실, 학습휴게실은 있어도 보조건물들의 내부를 돌아보느라면 저도모르게 《아》 하는 찬사가 흘러나온다.

천정대두리장식과 문물장식의 시공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았는데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람

바닥을 통해 들어온 군인건설자들은 한결의 물기도 고이지 않도록 미장면을 고르게 하고 작업자의 들레를 따라 배수통로도 새롭게 시공하였다. 그들은 가공실들은 물론 포장실, 복도를 비롯한 현장바닥의 전면적에 수직침강을 철저히 건설물의 전반적인 미를 높이고 위생문화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들구는 허리단장식

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내부의 벽면들에 두른 허리단장식이다. 군인건설자들은 모든 건설물들을 자기의 특성이 살아나게 시공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보조건물내부시공에서 벽면 중적으로 설치하는 시공방안이 나왔다. 복도천정면시공에서는

높아가는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였다.

이번 현지지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벽면들에 허리단을 주웠는데 아주 산뜻하다고, 이런 장식이 추세이라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산뜻하고 특색있는 복도천정처리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습식 공법이 아니라 전면적에 살장양 양의 구조물을 올려내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결과 시공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며서도 조명과 시공간격효과, 미학적요구를 다 같이 충족시키수 있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니 얼마나 멋있는가, 이런 수준이 되어야 본보기라고 할수 있다고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방문기 첨단설비를 그쁘히 갖추 몇쟁이 일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크지 않은 부지면적에 들어있는 갈마식료공장의 산뜻한 단층 건물들은 외벽타일의 색깔과 장식부리까지 수산물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료공장의 특성을 잘 살려주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붙인 생산 건물앞에서 만난 공장지배인 김기철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

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우리는 먼저 종합조종실에 들리었다. 앉은자리에서 호프식으로 이어진 전반적생산공정을 파악할수 있도록 모든 생산공정들이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화면들에 현시되고있다. 첫번째 화면에 주의를 돌리는 우리의 호기심을 포착한듯 운영기사 운영수동부가 저것이 바로 공정의 핵심생산공정인 승화건조공정이라고 귀뜸해주었다. 귀에 설은 승화건조라는 말의 의미를

되물은 우리에게 지배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승화건조라는 말은 다시말하여 팽동진공조라는 뜻이다. 기본설비인 승화건조로에는 내장 처리를 하고 굽듯한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을 넣는다. 진공상태에서 로의 온도를 순차적으로 낮추어 굽듯한 수산물의 수분을 액체상태를 거쳐 않고 직접 기체상태로 빨아내는것이 이 설비의 기술적우점이다. 승화건조 한 수산물은 기존의 방법으로

말린것에 비하여 맛과 냄새, 영양성분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말린 상태로 먹어도 좋고 특히는 일정한 정도 물에 불군 다음 요리하면 자기의 고유한 맛과 냄새, 영양성분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 이 물고기가공기지의 현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수 있게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 말씀판에 펼쳐나선 미려운 공정의 로동계급이었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설을 발기하시고 오늘까지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을 폐부로 느끼며 우리는 생산현장에 로동자를 이어왔다.

생산현장과 격패된 복도를 따라 1차가공실을 지나는 우리에게 해동설비앞에서 열면 토른을 벌리는 로동자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기대공들인 리경철, 신영민동무들인데 지금 가공실의 모든 설비들의 세부조절을 하는중이라고 일꾼은 이야기해주었

다. 팽동진공조설의 승화건조로앞에서도 박종호, 리철범, 정광원동무들이 기대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영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있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생산은 설비가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것이라고 하시며 기대공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담소판에 펼쳐나선 미려운 공정의 로동계급이었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담소를 높이 받들고 마지막 공정까지 이어놓은 로프를 따라 우리는 선별포장실에도 들리었다. 부원 방정호동무와 기술준비실의 령철동무가 질소수입포장기와 진공포장기를 리용하여 제품의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장해보며 토론을 하고있었다. 공장의 마크를 그린 포장봉지마대는 《팽동진공조한 명태》라는 상표가 적혀있었다. 무드기 깎이는 제품들을 보느라니 최상의 질과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로 가슴이 마냥 흥그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기술준비를 잘 갖춘 다음에는 생산성파로 설치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겠습니다.》

지배인의 심실에 넘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머지않아 상품매대에서 우리의 수산물가공품을 받아안을 인민들의 기쁨 넘친 모습을 그려보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종합조종실



1차가공실



짓갈가공실



가공품



공장의외부



팽동진공건조실



제품포장실

전선지대 무릉도원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미더운 지휘관들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참모장 김성국동무와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 정치지도원 안홍학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꾼들은 다 높은 실력을 지닌 일꾼들입니다.》

전선지대의 무릉도원, 철령이배 사파리대에 헌신과 위훈의 자욱을

어떤 삶이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선택가!
이것은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참모장 김성국동무에 대한 리단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돌격대리단장 김성국동무는 어느 한 기관의 설계원이었다. 때문에 돌격대에 나와서 리단의 시공부문을 담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임무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리단이 삼지연군에서 중요대상을 맡아 건설할 때였다.

온통 눈천지인 이곳에 어떻게 덩치 큰 건축물을 일떠세워야 하는가.

사람들의 눈길은 리단시공참모인 김성국동무에게 쏠렸지만 그에게도 별로 복잡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뼈저리게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아라! 몰라가지고서는, 주먹구구식의 일보세를 가지고서는 락오자로밖에 될수 없다.)

그때부터 그는 참고서들을 무성케 파고들기 시작했다. 낮에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지도로 드바며 뛰어들고 밤이면 밤대로 참고서속에 묻혀 새날을 맞았다.

재료력까지도 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빠짐없이 탐구하였다. 이런 학구적인 자세는 리단시공참모를 거쳐 리단참모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세계가는 미더운 지휘관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618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 참모장 김성국동무와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 정치지도원 안홍학동무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가 오래간만에 집에 들렀다가 식구들의 바빠움속에 질문을 내설 때면 듣는 언제나 참고서들이 가득한 배낭이 지워져있었다. 하기에 오래간만에 아버지께 보는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가 또 도서관에 가고싶어서 집에 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다.

그의 이런 불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하여 평안남도려단은 지난 14년간 그 어떤 복잡한 고산과 대내공 사파리에도 손색없이 해내곤 하였다.

지난 5월 리단은 고산과수농장 최그물물타리공장건설에서 돌파구락으로 할수 있는 중요한 과업을 맡아내게 되었다. 형강생산장에 무거운 근 10t을 헤아리는 천장기둥기둥대를 얹어야 할 파세였다. 리단은 물론 돌격대적으로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문제는 기둥기둥기둥과 설계였다. 기존공법대로라면 기둥이 얼마만큼 걸릴지 가능할수 없었다. 리단적인 힘의회에서 김성국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기둥기둥기둥을 만들 작업공간도 없고 그걸 들어올릴수 있는 기둥도 없습디다. 방도는 오직 하나 일체식으로 밀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회의참가자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작성은 기발하지만 허풍에 그런 유용한 구조물을 일체식으로 제작

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그 눈빛들에 비쳐 있었다.

그날 김성국동무의 방에서는 먼동이 터올 때까지도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진지한 사색과 탐구끝에 그는 드디어 합리적인 공법과 과학적인 담보를 찾아내 고야말았다. 그후 리단은 김성국동무의 치밀한 시공조직과 지휘 밑에 기둥기둥기둥과 설치작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냈으며 그 최그물물타리공장건설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그의 치밀한 시공조직과 지휘로 하여 평안남도려단은 건설전기간 언제나 반복시공이라는 것을 몰랐다.

우리는 취재과정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리단에서 맡아 일떠세운 건설물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대상이 아버지장군님께서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몸소 보아주시고 만족을 표시하신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삼지연군문화회관, 고산과수농장의 세 문화주택들, 최그물물타리공장... 참모장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는 우리에게 리단리단 김성국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 우리 리단이 일떠세운 삼지연군문화회관을 몸소 돌아보시고 시공을 참찰 하겠다고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는 원수님께서서 들리시였던 고산과수농장 제대 인공부부의 새살림집도 바로 리단이 건설한 집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기쁨을 드신 최그물물타리공장건설에서 우리 리단은 제일 어렵고 중요한 대상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파죽에는 바로 리단참모장인 김성국동무의 실력이 안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국동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높은 실력으로 조국의

심장의 평가-이런

3년전 새로 꾸리게 될 환강생산지지를 어느 단위에 맡겼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618건설돌격대 지휘부에서는 심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산과수농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 데서 환강생산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지휘부에서는 거듭되는 토의 끝에 강동군대대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강동군대대가 그 어느 단위보다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데도 있었지만 더우기는 대대 정치지도원인 안홍학동무에 대한 믿음에서였다.

대대가 환강생산지지를 맡게 되었는데는 알게 된 돌격대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환강이 생기는것을 말로만 들었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던것이다.

홍군은 출판을 벌려 리단들의 긴장되었던 마음을 녹였던 안홍학동무는 어느 한 강철공장으로 향했다.

그곳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만나 환강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그는 또다시 밤

무강변영을 위한 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는것, 바로 그것으로 당과 수행의 기억속에 남는 삶이 아니겠는가.

김성국동무의 삶은 이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지휘관과 함께라면

길을 달려가 유능한 기술자까지 데려갔다.

실비조립전투가 벌어졌다. 부족했지,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난문제가 압연기대대로 리용할 철판이었다. 철판이 해결되자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야 했다.

수십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못쓰게 된 화차가 있다는 말들은 안홍학동무는 리단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다. 두터운 화차바닥을 자그마한 쇠톱으로 잘라내자고 했을 때 대대기출참모는 정치지도원을 두고 골같은 사람이라고 한답디데 무슨말인가 했는데 어쩔이 커도 여간 크지 않더라 허를 찔렀다.

안홍학동무가 자신심에 넘쳐



김성국동무 (오른쪽에서 세번째)

말했다.

《우리 백두산에서 일본세력 때문 사람들이 아니요, 투사들처럼 한탄 분배에게 연결폭탄을 만들어봅시다.》

안홍학동무

30여종에 58점의 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자제로 마련하여 지금까지 고산과수농장건설에 필요한 1700여의 환강을 생산보장하였다.

오늘 강동군대대는 후방사업에서 돌격대적인 모범단위로 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400개체의 쇠톱날을 바꾼 5일만에 끝내 화차바닥을 잘라냈다. 그것을 가파로운 경사길로 끌어올리기도 했을 때도 주저하는 대원들에게 안홍학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결사판철, 이것이 우리의 투쟁방식이다. 먼 훗날 오늘을 증지높이 추억할수 있게 발걸음을 자신만만하게 용감하게 뻗시다.》

안홍학동무의 말을 들으며 대원들이 어깨를 들이대었다.

기적은 일어나고야말았다. 한치한치 힘겹게 달려온 철판으로 압연기대들이 성과적으로 설치되었고 그로부터 얼마후 첫 환강이 생산되었다.

안홍학동무는 리단들의 정진력을 불려일으켜 수천의 파철과

30여종에 58점의 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자제로 마련하여 지금까지 고산과수농장건설에 필요한 1700여의 환강을 생산보장하였다.

오늘 강동군대대는 후방사업에서 돌격대적인 모범단위로 되고있다.

안홍학동무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400개체의 쇠톱날을 바꾼 5일만에 끝내 화차바닥을 잘라냈다. 그것을 가파로운 경사길로 끌어올리기도 했을 때도 주저하는 대원들에게 안홍학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결사판철, 이것이 우리의 투쟁방식이다. 먼 훗날 오늘을 증지높이 추억할수 있게 발걸음을 자신만만하게 용감하게 뻗시다.》

안홍학동무의 말을 들으며 대원들이 어깨를 들이대었다.

기적은 일어나고야말았다. 한치한치 힘겹게 달려온 철판으로 압연기대들이 성과적으로 설치되었고 그로부터 얼마후 첫 환강이 생산되었다.

안홍학동무는 리단들의 정진력을 불려일으켜 수천의 파철과

안홍학동무 (오른쪽에서 네번째)



안홍학동무 (오른쪽에서 네번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은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하층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 경의 표시하였다.

리온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인미답의 길을 활히 밝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물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순님들과 해외동포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가네마루 야노노부 아나니시 TV주식회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 아나니시현대표단, 프레이저 캐머러스

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령동맹-아시아센터대표단과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유령동맹-아시아센터대표단과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 만경대 방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가 축하단과 동행하였다.

추하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인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니인 리보익네사님의 묘, 어머니인 김경진선생님과 어머니인 강반선네사님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이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통성만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유령동맹-아시아센터대표단과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제54차 전국로동자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공연 진행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 혁명명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함양시키고 함양 《승리의 대를 이어》, 대회사 《본분》, 실화이야기 《신념과 열성》 등의 종목들에 담아 형성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 혁명명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함양시키고 함양 《승리의 대를 이어》, 대회사 《본분》, 실화이야기 《신념과 열성》 등의 종목들에 담아 형성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 혁명명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함양시키고 함양 《승리의 대를 이어》, 대회사 《본분》, 실화이야기 《신념과 열성》 등의 종목들에 담아 형성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 혁명명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함양시키고 함양 《승리의 대를 이어》, 대회사 《본분》, 실화이야기 《신념과 열성》 등의 종목들에 담아 형성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 혁명명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함양시키고 함양 《승리의 대를 이어》, 대회사 《본분》, 실화이야기 《신념과 열성》 등의 종목들에 담아 형성하였다.

제13차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개막

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정치사상장구,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정치사상장구,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정치사상장구,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최대의 인류사적죄악

1945년 9월 8일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원한의 상처를 남긴 비극의 날이다. 바로 이날 미제침략군이 우리 조국의 절반반을 강점함으로써 민족분열의 역사, 치욕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이 들끓었다. 그 저주로운 날이 없었더라면 조선민족은 애당초 북과 남이라는 말도 몰랐을 것이며 조선반도가 전쟁영역이 가장 넓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겨레는 한두해도 아니고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간 세월 남조선을 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범죄적 만행에 일삼고있는 미제에 대한 치욕은 증오로 가슴끓고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대한 지향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용납 못할 자주권유린행위였다.

8.15해방후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뛰어난 창조적지혜와 능력을 총발동하여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한걸음이 떨쳐나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열망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수립하기 위해 미쳐달려던 미제에 의해 짓밟히고말았다.

일제배부러 아시아침략에서 차지하는 조선반도의 전략적중요성을 간파받은 미국은 일제의 패망이후 조성된 정세를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38°선이 남지역을 제2대 일본군의 그 무슨 《무장해제》를 위한 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대전》을 선포하고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를 내세워 침피괴적권을 조작하였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식민지배체계를 구축하

군에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이 지 하철도에서 20대 녀성을 집단적으로 성추행한 사건, 식당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고 침략자들에게 무제한 특혜와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도처에 침략군의 기지를 건설하고 전쟁연습소통을 미친듯이 벌려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는 등 생명을 앗아가고 환경을 파괴하고있다.

장구한 인류역사에는 강점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처럼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그처럼 악랄하게 통략하고 인민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야만인의 무리는 없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인민들의 불행과 재난은 결코 가셔질수 없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영역을 고조시키면서 조국통일의 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는 반통일적범죄행위였다.

지난 해 50년대에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겨레에게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이치는 미국은 전후에도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침략범죄를 끊임없이 증강하고 핵무기까지 만들어들이며 전쟁연습소통을 광범적으로 벌여왔다. 미국은 그 누구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요란히 떠들썩하며 대변한다는 구실밑에 괴뢰들과 함께 북침련합작전체제를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기를 주도해 증대시키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괴뢰침략군무리를 남조선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평화도 자주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내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파감히 벌려나감으로써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김 향 미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

최근 남조선에서 당국이 시대적요인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면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지난 8월 13일 조선반도평화통일시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단체는 북남관계파괴가 장기간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획기적조치로 7.4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비롯한 북남합의들을 준수하며 특히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최고우급에서 신변안정보장을 약속했기때문에 《정부》가 조급한 태도를 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우리당》내의 일부 인들도 금강산관광재개요구에 힘써 해나서고있다. 얼마전 《세우리당》 소속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북남관계개선방안으로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북남관계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얼마전 여당내에서조차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는 분위기가 확대되고있다고 하면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BS》, 《CBS》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도 북남관계가 극도로 침체한 국면에서 금강산관광재개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도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는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부정할수 없는 정설로,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고 한결같이 평가하였다.

본사기자 리호진

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괴뢰패당을 규탄하여 투쟁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여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세월》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괴뢰패당을 규탄하여 3일 서울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시내 여러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광화문광장에 모인 이들은 그 자리에서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것은 지체 없이 당당하게 그것만이 희생자들의 평화를 달래고 유가족들이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하였다.

씩을대로 썩은 괴뢰군실태를 폭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3일 사실에서 괴뢰군내에서 각종 사교와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폭로하였다.

사실은 최근 군부내에서 련이 잇쳐지는 사건, 사교와 추문은 하나같이 썩적하고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군의 현 주사라고 비난하였다.

2일 공수특전대에서 포로체결훈련을 구실로 10명을 공기가격의 통하지 않는 두건을 머리 에 씌운채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1시간 40분 동안이나 가두어놓음으로써 그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훈련이 올해 처음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노는 극도에 이르고있다고 밝혔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선것은 유가족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창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려고 새로운 시도를 건설하기 위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의 투쟁장소에 향하였다.

투쟁장을 걸음으로 둘러싸고 앞을 막아서는 괴뢰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유가족들을 만난 학생대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성원을 표시하였다.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야 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제가 남조선을 불법강점한 때로부터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1945년 9월 8일 《일본군규장해제》를 구실로 미국이 남조선에 강점한것은 일제를 대신한 보다 교활하고 횡포무도한 식민주의의 시작이었다.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에 이어 70년에 걸치는 미국의 군사적강점으로 조선반도 절반반은 가장 한층이상이거나 제국주의식민지배하에 놓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 식민지체제가 무너져 수많은 나라들이 억압의 쇄살을 벗어났지만 아직도 미제의 길을 걸어왔던 나라들 유독 남조선만이 오늘까지도 식민지정부를 그대로 쓰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이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으로 우리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력사에 류례없는 분렬의 비운을 겪어오며 온갖 안락제 미증이며 미국에 의해 가장 참혹한 전란까지 당해야 하였다.

미국의 지배와 강점하에 남조선은 공화국부담부와 아시아침략, 세계제국을 위한 군사기지를 두고,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철저히 전락되고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강점군의 횡포로 남조선 인민들이 겪은 치욕과 고통은 또 얼마나가.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다.

미국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통일문제가 조성될 때마다 군사적으로 북침과 북침정착점으로 정세를 교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1960년대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련북통일이 운이 급격히 높아져서 5.16군사쿠데타로 짓눌려버린것도 미국이 1970년대 7.4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통일을 대한 희망으로 온 강도가 높아졌을 때부터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무모한 도발로 정세를 전쟁정도로 몰아간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여러 갈래의 북남회담과 교류가 진행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자 미국은 수십년간의 병력을 동원하여 사망률은 《뎀 스피릿》 항공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이고 반공화국핵소통을 일으켜 그를 가로막아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이 진행되고 공중선언이 채택발표되었음에도 남조선당국자들은 당당히 질하고 《북핵위기》를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외교책동에 광탄적으로 매달리며 못내 친미노수 《정권》을 조작하여 6.15시대의 성과과를들 모조리 뒤집고 말살하였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미국의 책동은 최근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미국은 올해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모처럼 북남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에서의 합의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에 긴급출동시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강행하고 핵잠수함까지 끌어들이 《키 리올보》, 《독수리》북침전쟁연습을 위협하게 벌려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괴로 몰아넣었다.

이런데 우리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규모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내보내려 하는데 미국 《평양평화》과 《북핵위기 대타격》을 노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응원단파괴를 파란시킨 배후조종자도 바로 미국이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야말로 민족분열의 원흉이고 핵전쟁위협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통일을 나가려는 바를 바라지 않으며 북과 남이 계속 적대시하고 추종하기 짜두도록 괴뢰들을 부추기고있다.

그레야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저러들의 군사적지배를 강화하고 아시아와 세계제국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과연 언제까지 미국의 이러한 침략전쟁책동의 희생물로 남아있어야 하였는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최근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가는데 바빠맞은 미국은 괴뢰패당과 결이 되어 미제침략군의 영주주둔을 애걸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 이제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남조선당국이 내대민족분열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진시키지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현 《정권》이 이것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다면 천시시대정책을 버리고 미국과 함께 버리는 모든 북침전쟁연습을 철저히 반대하며 미국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조선반도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의 근본해결책이 있다.

주제103(2014)년 9월 7일 평 양

《바다 만풍가》의 선창은 누가 해야 하는가

나라의 수산업은 추겨세월대에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동해와 서해가 들끓고있다. 어느 포구에 가보아도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를 들을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노래의 선창은 누가 해야 하는가.

김척수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그 대담을 찾아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공과 열심태를 가지고 일해야만 합니다.》

수산부문의 어느 단원이 그러 하듯이 올해에 이 사업소가 내세운 수산물생산목표도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량이다.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여 년간계획수행의 틀과구를 열여섯 사업소에서 사해서 수려하던 중산조성에 화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높이 내세운 전투목표, 그 수행을 위해 이 수산업사업소의 일꾼들은 어떤 작전을 펼치었는가. 뭉뚱거리고 사색적인것은 사전준비라고 해야 할것이다. 어느 수산업사업소에 가보아도 일꾼들이 먼저 깨닫고 하는것이 바로 이 이야기이다. 사업소에서는 지난 3월 2일 저녁에는 3월차지 집행하던 수십일에 달하는 배들의 수리 및 정비를 올해에 들어와서는 1월 한달동안에 위약없이 끝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척의 배를 새로 못는 전투도 밀착적으로 내밀었다. 로가 땀 흘려 《바다 만풍가》를 부르기 위한 투쟁은 이렇듯 절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빠에 사업소에서 진행던 어

김척수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는 점이라고 볼수 있다.

사전준비도 결국은 실천을 위한것이다. 사업소에서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물고기들을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 잡고 가까운바다에서 잡고있다.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쉼새없이 물고기를 잡고있다.

낙지잡기에 한창인 때 중심어장에 위치하고있는 모선주변에 사업소의 모든 배들을 집중시켜 놓고 집단어로를 한껏 실패로 들구자 한다. 바다에서 연유도 직접 골라내고 잡는 물고기들 그대 때 모선에 옮겨질수이나 어로서간과 어획량은 그만큼 늘어났다.

집안어 모선인 아니다. 때로 사업소의 일꾼들은 대청마을에 먼 바다에 진출하는 2척트랄에 의한 물고기잡이도 분산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실제로 지난 5월말 사업소의 큰 배들이 먼 바다에서 며칠동안 2척트랄에 의한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렸는데 성과가 좋았다 한다. 물고기를 낚아들었다는 통보와 함께 바다에 진출하면 이미 때가 늦는다. 사업소의 일꾼들은 여러 해구에 물고기떼가 나타날수 있는것을 파악하는데 애착을 기울여 주시에 여러척의 배를 그곳으로 기동시킴으로써 배로는 물고기잡이에 미리 매복을 시도후 하였으며 또 몇척의 배로는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을 모조리 잡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물고기떼를 맞바이나가면서서도 잡고 따라가면서서도 잡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단판을 타게해나가는것은 일꾼들이 지니고있어야 할 실력에 보다 큰 책임을 짊어지고있다.

6000여개의 영양성분주입을 위한 작업이 있다. 지난 3월초 아미산의 다시마양식장에서는 긴급정황이 발생하였다.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것으로 하여 다시마의 영양성분이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 더 지나면다만 수산물생산계획수행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실사정면어양식장 6000여개의 영양성분주입을 실시하는것이 필요였다. 사업소의 양식정면어는 10여명도, 며칠동안 6000여개의 영양성분주입을 마친한단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았다. 그러나 단 하루반에서 필요한 영양성분주입들이 모두 마르면 바다에 설치되었으면 다시마양식장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누구나 선뜻 믿기 어려웠다는 이러한 사실은 진척의 앞길을 열어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어구수리가 진행된다. 물고기를 싣고 사업소로 돌아온 배들은 한번 사용한 어구들을 수리된 어구로 교체후 추속에 바다로 진출한다. 이와 같이 어로전투와 어구수리전투를 밀착적으로 내밀고있는것은 사업소의 일꾼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자기만한 공과를 생기기 싫도록 하기 위해 얼마만큼 치밀한 작전을 펼치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일꾼들이 사전작전을 면밀히 짜고있고 실천하는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시로 맞다든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방석같은 애국의 마음으로

각 지방원들과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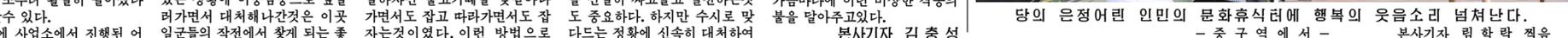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성지도구 유류철거장도 올해 3월부터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돌리대연으로 전환되어 일하면서 세로평탄에 철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는 노력적위훈을 수상하면서 당의 대자연계조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며 애국기공을 다짐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복과 생활용품들을 지원하여 건설에 떨쳐나선 동료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영양호명 로동자 박은별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청년전위영예를 빛내일 한마음으로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남다른 헌신하였다. 그는 돌격대원으로 일하는 파장에 여러차례에 걸쳐 가장어려운 지면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이바지하여 준다.

본사기자 오은별



당의 은정어린 인민의 문화휴식처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 중국 역에서 - 본사기자 립학각 찍음

